

“태권도 사관학교 설립 힘 실어달라”

황인홍 무주군수, 국회 방문 여·야 의원 면담 갖고 국비 3억원 강력 요청

황인홍 군수가 민선8기 대표공약인 국제 태권도 사관학교 설립을 위해 여·야를 초월해 정치권을 상대로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황인홍 군수는 지난 29일 여·야 전 북출신 국회의원 의원실을 방문, 국회의원 및 보좌진을 잇따라 면담하고 국제 태권도 사관학교 설립을 위해 정치권에서 힘을 실어줄 것을 요청했다.

황 군수는 이날 면담 자리에서 “국제 태권도 사관학교 설립에 필요한 사전타당성 연구 용역비(3억 원)를 기획재정부에서 심사가 진행되는 만큼 정부 심사단계에서 예산안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정치권에서 힘을 실어 달라”고 건의했다.



황인홍 군수는 지난 29일 여·야 전 북출신 국회의원 의원실을 방문, 국회의원 및 보좌진을 잇따라 면담하고 국제 태권도 사관학교 설립을 위해 정치권에서 힘을 실어줄 것을 요청했다.

이어 “고속도로 5km 건설 비용이면 전 세계로 수백만 km 뻗어나갈 태권도 문화고속도로를 만들 수 있다”며 “태권도의 국제 경쟁력 강화 및 위상 제고를 위해서는 글로벌 태권도 인재 양성기관 설립이 절실하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올림픽 중목을 두고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 일본의 가라테와 중국의 유수 등 거센 도전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스포츠 외교관 육성을 통해 태권도 보급뿐만 아니라 외교·통상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반드시 설립해야 한다”며 국제 태권도 사관학교 설립은 새정부 공약에 반영된 만큼 충실한 이행을 위해 정치권에서 협조를 부탁했다.

앞서 황 군수는 지난 19일 기획재정

부를 방문하고 “한류의 원조라 할 수 있는 태권도를 통해 전 세계로 한류·문화·영토를 확장함으로써 국익과 국가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해 추진되는 국제 태권도 사관학교 설립을 위해 국비 3억 원을 반영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군은 지난 2020년 10월부터 사관학교 설립 지지 국민 서명운동과 지난해 4월에는 무주군민들로 구성된 국제태권도사관학교 설립 추진위원회 가동했으며 지난해 6월 문화체육부에 ‘Again 태권도를 위한 U-프로젝트’ 정책 제안서 제출과 국회 방문 활동 등을 펼쳤다.

/무주=전문선 기자

무주군, 농기계 혁신제품 시범사용 공모 선정

무주군이 농기계 혁신제품인 전동 농업용 고소작업차를 이용해 오는 9월부터 무풍사과재배단지 등에서 농작물 수확에 활용할 수 있게 됐다.

무주군에 따르면 조달청으로부터 농기계 혁신제품 시범사용 공모에 선정되면서 국비 1억3천만 원을 지원받게 됐다.

이로써 군은 전동 농업용 고소작업차 6대를 구입해 관내 농업기계 임대사업소에 비치, 농장주(농원)에게 임대할 수 있도록 사과수확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전동 농업용 고소작업차는 과수원 작업과정에서 전정, 적과, 수확 등 원할 수 있는 친환경 전동형 차량으로 경사지에서의 자동 수평유지, 차량정보 모니터링, 간편한 조작 등 스마트 기능이 부가된 농업용 기계이다.



이에 따라 무주군농업기술센터에서 각 농장주에게 고소작업차에 대한 임대 가능하게 되면서 작업자의 안전성 확보와 농업생산성의 극대화를 꾀할 수 있게 됐다.

앞서 군은 지난 7월 22일 조달청과 업무협약을 통해 시범사용 결과를 바탕으로 혁신제품의 공공관로 개척 및 홍보·확산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약속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진안고원 명품수박 판촉행사

진안군은 진안고원 수박의 성숙하기를 맞아 지난 29일부터 31일까지 서울 하나로마트 양재점에서 진안고원 명품수박 판촉행사를 추진했다.

29일에는 전주성 군수와 정미경 농업진흥인근자부장을 비롯해 농협조합장, 조공법인 대표 등이 판촉행사를 찾아 판촉 행사를 함께 진행했다.

군이 주최하고 진안군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이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해발 350m 이상의 준고랭지 청정지역에서 생산되는 진안고원 명품수박의 인지도를 높이고 안정적인 판로 확보를 위해 마련됐다.

진안고원 명품수박은 고랭지의 큰 일교차와 풍부한 일조량을 바탕으로 과육의 속이 짙고, 식감이 아삭아삭한 것이 큰 특징으로, 이러한 기후적 특성에 따라 출하시기가 타 지역 생산 수박보다 늦어 더 오랫동안 만나 볼 수 있다.

/진안=우태만 기자



장수군이 최훈식 군수 주재로 2022년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회를 가졌다.

“군민 중심 현장 행정 집중”

최훈식 장수군수,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회 가져

장수군이 최훈식 군수 주재로 2022년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회를 가졌다.

지난 25일부터 시작된 이번 보고회는 군수, 부군수, 국장, 실·과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행정지원과를 시작으로 29일 기획조정실까지 전체 20개 실·과의 업무보고를 진행했다.

이번 보고회는 과거 실·과에서 군수에게 보고하는 기존의 형식을 탈피해 현안사업에 대한 쟁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방향으로 주요 시책에 대해 밀도 있는 논의를 나눴다.

장수군이 추진 중인 주요사업은 △동부권 발전사업 추진 △국가예산확

보를 통한 재정 안정 실현 △농산물 안정기금 400억 원 조성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LPG배관망 구축사업 등이다.

최훈식 군수는 “이번 보고회에서 나온 주요사업들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전 실·과가 협력해주시길 바란다”며 “모든 쟁점 현안은 군민들을 중심으로 접근해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민선8기 장수군이 새롭게 도약하기 위해서는 부서장들이 현장에서 직접 발로 뛰고 군민들과 소통해야 한다”며 “군민 중심의 현장 행정, 열린 행정을 구현해달라”고 당부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지역 소식통

진안군, 제6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출범

진안군은 지난 28일 제6기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 위원회)가 출범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주민참여예산제는 지역 주민들이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과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지방 재정 운영에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다.

이날 군청 상황실에서 출범식을 갖고, 주민참여예산 위원,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위촉식을 시작으로 2022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 설명과 함께 향후 2년간 위원회를 이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출을 진행했다.

위원장에는 진안읍 김종구 위원이, 부위원장에는 안천면 양희연 위원이 선출됐다.

제6기 주민참여예산위원회는 군 위원 15명을 중심으로 각 읍·면 지역분과위원회 및 청소년분과위원회 등 총 75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24년 6월까지 2년 동안 진안군 예산편성 방향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고, 군에 필요한 정책과 사업을 제안하는 등 예산 과정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진안=우태만 기자

진안군, 민방위 사이버 보충 1차 교육 실시

진안군은 8월 1일부터 오는 9월 15일까지 2022년 1차 민방위 보충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모든 민방위대원 및 대상 중 본 교육 미 이수자 19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 집합교육 시 발생할 수 있는 코로나 19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모든 민방위 대원 및 대장을 대상으로 1시간의 민방위 사이버교육을 실시한다.

이에 따라 PC 또는 스마트폰을 활용해 24시간 접속이 가능한 스마트민방위교육을 할 수 있으며, 사이버 교육이 어려운 민방위 대장 및 대원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서면교육으로 대체하면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된다.

또한 2022년 현월증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도 민방위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진안=우태만 기자



김홍훈 진안경찰서장, 진안군 명예군민 됐다

진안군은 지난 29일 김홍훈 진안경찰서장에게 제5호 진안군 명예군민증서를 수여했다.

명예군민증서는 재임기간 동안 진안군 발전한 기여한 공로로 추진됐다.

김홍훈 경찰서장은 2021년 치안고객만족도 전국 1위 경찰서 선정과 함께 범죄피해가정에 경제적·정신적 지원을 추진하였고, 실종 시 골든타임

에 집중적인 합동수색으로 실종자 2명을 조기에 가족에게 인계했다.

또한 경찰·소방·행정·의회·Kwater·남원국토관리청이 연계한 자살예방을 위한 치안협의체를 구축하고, 즉일조사제와 같은 방문민원 신속처리 등으로 수사 분야 고객만족도도 내 2위를 달성한 바 있다.

/진안=우태만 기자

전주매일 화재예방캠페인

무심코 버린 인화물질
산불의 원인이기도 합니다